

# 『추안급국안』 소재(所載) 서사의 특성 분석과 역사극 콘텐츠 활용 방안

- <무신년 임해군(臨海君) 이진(李埈) 심문기록>을 중심으로\*

함복희\*\*

- 목 차 -

- I. 서론
- II. 서사적 텍스트로서의 역사
- III. 서사 관점에서 임해군 역모 사건 분석
- IV. 역사극 콘텐츠로의 활용 방안
- V. 결론

## |국문초록|

이 논문에서는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 1권에 수록된 <무신년 임해군(臨海君) 이진(李埈) 심문기록>을 중심으로 임해군 역모사건과 증인들의 진술을 서사 관점에서 분석하고, 역사극 콘텐츠로 활용할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추안급국안』은 조선후기 역모사건에서부터 변란, 흉악한 상소[凶疏], 서학(書學)에 이르기까지 죄인들을 왕명에 따라 심문한 기록이다. 역모 사건이 주로 기록되었지만 역모 사건 외 변란이나 상소 문제 등 다양

---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7088624)

\*\* 강원대학교 교양교육원 강사

한 사건을 다루고 있어 당대 중요한 사건 양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록물이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무신년 임해군(臨海君) 이진(李埈) 심문기록은 광해군의 형인 임해군 이진(李埈)의 역모를 입증하기 위해 추국청으로 불러들인 증인들의 심문과 진술을 정리한 내용이다.

임해군 역모사건은 『조선왕조실록-광해군일기』에 연대기적 기록이 있고,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 1권에 역모 증인 진술 중심의 기록이 있다. 두 기록에서 사건의 진행 흐름과 변화를 파악할 수 있고 의미를 읽어낼 수 있으므로 이 기록들을 역사서사로 볼 수 있다. 두 역사서사는 임해군 역모사건의 진실을 재조명할 수 있는 일정한 틈을 허용하는데, 이것이 임해군 역모사건을 서사적 관점으로 살펴보는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임해군 역모의 공적 역사는 단한 결론이지만 이에 대항하는 개별 증인들의 변론에 의해 결론이 해체되고 새로운 진실을 탐색해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역모 증인이지만 역모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인물들의 진술이 임해군을 정치적으로 제거하고자 하는 서사와 긴장된 거리를 유지하면서 공적 역사의 진실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 1권 <무신년 임해군(臨海君) 이진(李埈) 심문기록>에는 노비, 아이 등 다양한 인물들이 증인으로 등장한다. 이들의 진술 내용은 증인들의 삶의 양태나 조선시대 법이 어떻게 작동되었는지를 보여준다. 공적 역사서술과는 다른 층위로 진행되는 개인의 진술 서사는 역사 콘텐츠 소재로써도 가치를 지닌다. 이 연구에서는 임해군 역모사건을 공적인 역사서사와 개인들의 진술서사를 교차시켜 긴장감을 높이면서 진실을 추적해가는 역사극 콘텐츠로 활용할 방안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임해군 역모사건 자기변론 서사를 서사 관점으로 주목하면서, 『조선왕조실록-광해군일기』에 연대기적으로 수록된 임해군 역모사건의 추이를 함께 참고한다.

## I. 서론

본고에서는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 1권에 수록된 <무신년 임해군(臨海君) 이진(李埈) 심문기록>을 중심으로 임해군 역모사건과 증인들의 진술을 서사 관점에서 분석하고, 역사극 콘텐츠로 활용할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추안급국안』은 조선후기 역모사건에서부터 변란, 흉악한 상소[凶疏], 서학(書學)에 이르기까지 죄인들을 왕명에 따라 심문한 기록이다. 역모 사건이 주로 기록되었지만 역모 사건 외 변란이나 상소 문제 등 다양한 사건을 다루고 있어 당대 중요한 사건 양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록물이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임해군 역모사건 기록’은 광해군의 형인 임해군 이진(李埈)의 역모를 입증하기 위해 추국청으로 불러들인 증인들의 심문과 진술을 정리한 내용이다.

광해군은 선조의 적장자가 아닌 후궁의 소생이었다. 적장자를 세자로 세워 왕위를 물려주려 했던 선조는 적자도 장자도 아닌 광해군을 세자로 세우게 된다. 임진왜란을 겪으며 선조와 광해군은 민심의 상반된 평가를 받게 되고, 임진왜란 후 적장자 영창대군이 태어나자 선조와 광해군의 사이는 끝이 더 깊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광해군을 지지하는 대북파와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소북파가 참여한 대립을 한다. 선조가 죽고 대북파의 도움으로 광해가 왕위에 오르면서 어린 동생 영창대군과 형 임해군은 갈등의 요소가 되었다. 명나라는 장자 임해군 대신 광해군이 왕위에 오른 것에

의문을 제기하였고 임해군에 대한 여론과 민심은 흉흉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해군은 역모 혐의를 받았으며 임해군 측근과 종들에 대한 대대적인 추국이 이루어졌다.

광해군이 즉위하자 임해군 역모사건이 발생하고, 임해군은 이듬해 이이첨에 의해 강화에서 죽임을 당하기 전까지 역모 혐의를 받았다. 임해군 역모사건에 관련되었다고 추정되는 증인들은 추국청에 불려와 심문을 받는다. 이러한 임해군 역모사건은 『조선왕조실록-광해군일기』에 기록된 연대기적 내용과 『추안급국안』에 실려 있는 심문 및 증인 진술 기록으로 각각 존재한다. 연대기적 기록에는 역모 혐의를 기정사실화 해놓은 후 사건을 진행시켜가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이는 장자인 임해군을 두고 광해군이 왕위에 오른 것과 관련하여 중국과 외교문제 발생, 임해군에 대한 부정적인 평판과 민심, 왕의 친형이라는 부담 등 복합적 문제에 대한 해법이 임해군 역모혐의로 수렴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광해군 즉위 후 복잡한 정치적 난맥상을 역모담론으로 풀어가려는 의도가 실재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광해군일기』에는 임해군을 역모죄로 다스리라는 대신과 측근들의 요구와 상소가 빗발치고, 한편으로는 임해군 역모에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증인으로 불러들여 심문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나온다. 임해군을 역모 주범으로 결론짓고 상소를 하거나 증거를 찾는 방식은 연역적이며, 『광해군일기』 연대기에 기록된 임해군 역모사건은 거시 역사이며 공적인 역사에 해당한다.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 1권 <무신년 임해군(臨海君) 이진(李埈) 심문 기록>에는 삼사(三司)와 측근들의 요구를 수용한 광해군이 심문을 허용한 후 증인들을 불러들여 진술을 받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임해군 역모혐의 증거를 찾기 위해 주변인, 노비 등을 대거 불러 심문을 하고 추국

청에 불러온 증인들은 역모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호소하는 자기변론을 한다. 역모와 거리가 먼 생계형 삶의 서사들이 모여 역모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귀납적 결론으로 향한다. 증인들의 진술한 개인서사는 임해군 역모사건의 이면을 촘촘하게 들여다보게 하는 미시 역사이다.

두 기록을 통해 사건의 진행 흐름과 변화를 파악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역사적 의미를 읽어낼 수 있으므로 이 기록들을 역사서사로 볼 수 있다. 두 역사서사는 다른 방향을 향하지만 일정한 틈을 허용하면서 임해군 역모사건의 진실을 재조명할 수 있는 결론으로 향한다. 이것이 임해군 역모사건을 서사적 관점으로 살펴보는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임해군 역모의 공적 역사는 단힌 결론이지만 이에 대항하는 개별 증인들의 변론에 의해 결론이 해체되고 새로운 진실을 탐색해볼 수 있게 된다. 역모 증인으로 불러왔지만 역모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진술이 임해군을 정치적으로 제거하고자 하는 공적 서사와 긴장된 거리를 유지하면서 공적 역사의 진실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 1권 <무신년 임해군(臨海君) 이진(李埈) 심문기록>에는 노비, 아이 등 다양한 인물들이 증인으로 등장한다. 이들의 진술 내용은 증인들의 삶의 양태나 조선시대 법이 어떻게 작동되었는지를 보여준다. 공적 역사서술과 다른 층위로 진행되는 이러한 개인의 진술 서사는 역사 콘텐츠 소재로써도 가치를 지닌다. 임해군 역모사건을 공적인 역사 서사와 개인들의 진술 서사를 교차시켜 긴장감을 높이면서 진실을 추적해가는 역사극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안도 살펴보고자 한다.

임해군 역모사건은 당대 복잡한 정치지형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임해군 역모사건은 선조의 핏줄의식과 실정, 집권세력인 대북파의 영창대군 살해 및 인목대비 폐위, 인조반정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받거나 주는 역

사 인자(因子)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임해군 역모사건을 다룬 연구가 거의 없는 것에는 추국청과 역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있다고 본다. 조선시대 추국청은 모반(謀反)이나 모대역(謀大逆)과 같은 왕조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를 조사하는 임시 기구였다.<sup>1)</sup> 추국장이 정치연구에서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한 것은 정치체제의 존립에 위협을 가하거나 최고 정치 행위자 권위에 도전하는 반역사건을 예외적이고 극단적인 사건의 하나로 간주해 왔기 때문이다. 또한 반역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조선 시대의 사법권 혹은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 때문일 수도 있다.<sup>2)</sup> 임해군 역모사건이 당대의 복잡한 정치 상황이나 역사적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 당대 왕권을 둘러싼 권력의 속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각도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임해군 역모사건을 서사의 틀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국역 『추안금국안(推案及鞫案)』 1권에 수록된 <무신년 임해군(臨海君) 이진(李埈) 심문기록><sup>3)</sup>과 『조선왕조실록 - 광해군일기』에 수록된 임해군 역모사건 기록을 연구 대상 자료로 하였다.

## II. 서사적 텍스트로서의 역사

이 연구는 역사 사건에서 서사적 요소를 발견하여 그 특성을 분석함으

- 
- 1) 김우철, 「조선 후기 推鞫 운영 및 結案의 변화」, 『민족문화』 35, 한국고전번역원, 2010, 207쪽.
  - 2) 이하경, 「추국장에서 만난 조선 후기 국가 : 영조와 정조 시대 《추안금국안(推案及鞫案)》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35쪽.
  - 3) 국역 『추안금국안(推案及鞫案)』은 1601년부터 1905년에 이르기까지 죄인을 심문 및 참고인 진술 과정과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1983년 아세아문화사에서 영인하였고,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에서 2004년 한국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완역하여 10년 만인 2014년에 90권으로 출판한 것이다. 1권의 역주는 오항녕이 하였다. 이후 『추안금국안(推案及鞫案)』 심문과 진술은 이 국역서에 수록된 것임을 밝혀둔다.

로써 당대 사건을 재조명하고, 이를 역사콘텐츠로 만들어 현대 대중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와 서사의 친연성 문제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역사와 서사 문제에 대하여 박태순<sup>4)</sup>은 역사적 사실=과학(역사학), 역사적 상상력=문학이라는 등식은 역사학 자체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문학에 대해서도 일종의 논리적 질곡을 초래한다고 했다. 박태순은 나아가 역사적 서사구조의 실체를 어떻게 창조적으로 파악하며 이를 역동적으로 형상화해<sup>5)</sup>내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황국명<sup>6)</sup>은 오늘날 서사는 이미 문학으로서의 특권적 지위를 상실하고 서사의 범위가 언어적/비언어적 서사와 허구적/비허구적인 내용을 포괄한다는 점에 주목하며 오늘날 다양한 분야로 서사이론이 확산되는 것을 예로 들고 있다. 이야기는 인간의 보편적 욕구이므로 서사는 문학작품만의 특성이 아니라 모든 사회의 모든 층위의 무수한 텍스트에 광범위한 형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사회의 모든 현상을 해명하려는 이론이나 지식담론도 서사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박일우<sup>7)</sup>는 어떤 역사적 사건을 이해하고 시대적 재해석을 통해 그 의미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은 사건 주체인 인간, 그의 감정, 생활양식, 문화, 인간 집단의 전통, 욕망 등 현재를 구성하는 모든 사정들이 유기적인 연결성을 획득했을 때야 비로소 당대의 시대정신으로의 의의를 갖는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역사를 서사 관점으로 분석하고 이해했을 때 사건 당사자인 인간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진실 여부가 재조명되어야 하는 역사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기란<sup>8)</sup>은 거시적 서사로부터 망각할 수 없는 논점을 환기하는 “미시

4) 박태순, 「역사의 서사적 구조와 서사문학」, 『월간사회평론』 92(4), 사회평론, 1992, 146쪽.

5) 위의 논문, 153쪽.

6) 황국명, 「서사론의 요소와 그 시각」, 『현대소설연구』 제8호, 한국현대소설학회, 1998, 399~400쪽.

7) 박일우, 「역사 복원을 위한 서사 전략 연구」, 『국제어문』 90호, 국제어문학회, 2021, 505쪽.

적 서사”로서의 기억이 역사의식의 주체적 능동성을 환기한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이 연구 역시 거시적인 공적 역사의 집단 기억으로 공고화되어 있는 것에 새롭게 환기할 부분 즉 진실이나 사실이 누락되거나 고의적으로 왜곡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 재조명하되 서사의 관점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추안금국안』 <무신년 임해군(臨海君) 이진(李璉) 심문기록>은 『조선왕조실록』에는 기록되지 않은 다양한 인간 군상과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둘러싼 인물들의 적나라하고 집요한 자기 방어, 알리바이, 감정 호소 등의 양상이 드러나 있다. 궁의 노비, 궁 밖의 노비들이 대거 등장하여 자기 결백 및 임해군과 전혀 무관한 자기존재를 증명하는 서사는 편년체 역사 기록물에서는 볼 수 없는 생동감 있고 절박한 스토리들로 역동적인 서사적 특질이다.

안병직<sup>9)</sup>은 일반적으로 서사를 역사서술의 형식으로만 여기고 서술 내용과는 의미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다고 여기는데 비해 헤이든 화이트는 역사서술 형식인 서사가 서술 내용을 결정한다고 언급한 점을 주목하였다. 역사서술은 서술의 토대가 되는 개별 사실 각각에서는 찾을 수 없는 별개의 독특한 의미를 갖는데, 이 서술된 역사의 의미는 바로 개별 사실을 엮어 전체적으로 하나의 이야기(story)를 구성하는 서사의 기능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안병직이 파악한 헤이든 역사서술과 서사의 개념이다.

서사적 의미에서 사건이란 무엇인가? 사건은 행위들(행동들) 또는 의도치 않게 일어난(벌어진) 일들이다. 둘 다 상태의 변화들이다. 하나의 행위는 행위자 또는 피행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누군가에 의해 초래되는 상

---

8) 김기란, 「역사, 연극, 문화적 기억-기억/망각의 역설이 작동하는 역사의 무대화 방식 일고찰」, 『드라마연구』 53, 한국드라마학회, 2017, 6-7쪽.  
9) 안병직, 「픽션으로서의 역사픽션으로서의 역사: 헤이든 화이트(Hayden White)의 역사론」, 『人文論叢』 51,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04, 39쪽.

태의 변화이다.<sup>10)</sup> 임해군 역모사건은 행위의 변화와 그 변화가 영향을 미쳐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오는 양상을 보인다. 서사적 차원에서 살펴야 사건의 의미를 재조명할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 역사이론의 등장으로 포스트모더니즘 역사이론과 모더니즘 역사이론 간 논쟁은 필요하다고 본다. 포스트모더니즘 역사이론의 등장은 모더니즘 역사학의 위기론 등장부터 역사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에 봉착하도록 하였다.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논쟁이 이루어지는 이 문제는 아직 명료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지형<sup>11)</sup>은 포스트모더니즘 역사이론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가 가져온 곡해나 오해의 결과를 지적하면서 포스트모더니즘 역사이론이 국내에 전유되는 과정의 문제를 적시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국내 사학계에서 포스트모더니즘 역사이론을 언어환원주의로 단정 짓는 태도와 관련하여 견해를 밝히고 있다.

장동하<sup>12)</sup>는 비록 역사가 과거자체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역사가의 연구대상인 과거와 과거 사람들의 삶의 편린, 흔적으로써의 과거 그 자체는 그 범주에 있어 다르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는 젠킨스가 역사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에 앞서 ‘역사’와 ‘과거’를 엄격하게 구분할 것을 주장한 점을 들면서 역사와 과거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과거와 역사를 구분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과거의 기록일 뿐인 역사와 과거 자체 사이에 진짜 구분이 있다는 사실을 소홀히 한 데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또 그는 역사를 담론으로 만드는 것은 어떤

---

10) 채트먼, 홍계범 역, 『이야기와 담화』, 호모 루덴스, 2019, 53쪽.

11) 조지형, 「포스트모더니즘 역사이론의 어긋음 위에서」, 『문화과경계』 2(4), 문학과경계사, 2002, 130~132쪽.

12) 장동하, 「포스트모던 시대 역사 읽기·쓰기」, 『인간연구』 2,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 인간학연구소, 2001, 14~16쪽.

믿음이나 신념, 단언이라기보다는 지식이며 바로 이것이 역사의 권리주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연구는 공적 기록인 『조선왕조실록-광해군일기』와 미시적인 기록인 『추안급국안』에 실린 임해군 역모 사건의 공통분모와 변별점을 탐색하면서 역사극으로의 변주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다. 임해군 역모 사건 기록물은 굳이 구분하자면 젠킨스가 말한 ‘과거’에 가까운 부분도 있고, ‘역사’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다. 이 연구에서 ‘과거’라고 받아들이는 부분 역시 기록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써 사건의 흔적이다. 즉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임해군 역모 사건은 실제 존재했던 과거의 이야기지만 ‘과거’ 그 자체는 아니고 역사가에 의해 기록된 ‘역사’로 존재하는 것이다.

완전한 실체를 접할 수 없는 ‘과거’는 기록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다. 모더니즘 역사이론과 포스트모더니즘 역사이론은 상호보완적 이해의 토대를 갖기 위해 더 많이 토론하고 소통하면서 각각의 한계를 극복해나가야 한다. 각각이 지닌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생산적 논쟁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되, 역사를 인식하는 다양한 방법론으로 이해하는 통합적 시각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 연구에서는 모더니즘 또는 포스트모더니즘 역사 관점을 지니기보다는 미시적 자료인 『추안급국안』에 실린 증인 진술은 사건의 ‘과거’로, 사건에 대한 의견이나 사론은 ‘역사’로 구분하되, ‘과거’는 기록으로 전환된 또 하나의 ‘역사’라는 점을 밝혀둔다. 이러한 점을 출발점으로 하여 ‘과거’와 ‘역사’에서 서사적 요소나 모티프를 찾아내어 이를 현대 대중에게 사건 당대의 역사 사건을 환기할 수 있는 변주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역사 자체의 연구라기보다 역사에서 서사적 요소를 발견하고 이를 대중적 콘텐츠로 변주하는 방안을 탐색하는데 비중을 둔다. 또한 이 연구는 역사에 내재된 서사와의 친연성이 이미 학문적으로 합의된 개념임

을 전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다루는 임해군 역모 사건은 당대 인간의 권력욕과 욕망, 다층적 갈등 관계, 성공과 안정을 위한 모험, 자기방어 등 특정 행위의 동기가 되는 모티프와 모티브를 지니고 있는데, 이는 일반 서사의 특질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 III. 서사적 관점에서 임해군 역모 사건 분석

#### 1. 연대기에서 발견되는 모티프와 서사적 전환

헤이든은 그의 저서 『메타역사』에서 역사연구의 개념을 i) 연대기, ii) 이야기, iii) 플롯 구성의 형식, iv) 논증 형식 v) 이데올로기적 의미에 의한 형식으로 구분<sup>13)</sup>하고 있다. 그는 연대기는 도입 과정 없이 사가(史家)가 사건을 기록하기 시작할 때 시작되며 연대기에는 절정도 해결도 없고 사건이 무한히 이어지는 개방적인 것<sup>14)</sup>이라고 말한다. 또 헤이든은 역사가의 목적이 연대기 속에 매장되어 있는 ‘이야기’를 발견하고 ‘확인’하며, ‘드러내 보임’으로써 과거를 설명하는데 있으며<sup>15)</sup> 연대기에서 이야기로 전환되는 것에서 역사 서사 개념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였다.

연대기는 시간의 연속성을 기준으로 사건을 연결하는데, 이러한 연대기 속에서 특정 모티프를 발견함으로써 이야기로의 전환이 가능해진다. 모티프는 다른 사건의 원인이 되거나 결말이 되기도 하고, 특정 사건의 발단이 되기도 한다. 즉 모티프의 발견은 플롯의 기능을 주목하게 한다. 연대기적

13) 화이트 헤이든, 천형균 역, 『메타역사 II』,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1, 21쪽.

14) 위의 책, 23쪽.

15) 위의 책, 24쪽.

역사 서술이 그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난 일을 중심으로 사건을 연결해나가는 것이라면 역사서사는 서사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유기적인 연결 고리를 통해 역사적 의미를 형성하는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이는 플롯개념으로 다시 설명할 수 있다.

플롯의 기능은 어떤 이야기-사건들을 강조하거나 덜 강조하고 다른 사건들은 독자가 추론하도록 남겨두고, 보여주거나 말해주고, 해설하거나 침묵하고, 하나의 사건이나 인물의 이런저런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sup>16)</sup>. 이런 과정을 통하여 역사적 사건은 새로운 이해가 가능한 국면으로 전환한다.

『조선왕조실록-광해군일기』에서도 임해군 역모 사건이 연대기 중심으로 다루어진다. 이 연대기에서 특정 모티프를 발견하여 이야기로 전환할 때 이 사건의 역사적 연결고리가 생겨 이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추정해볼 수 있다. 광해군 일기에는 임해군이 역모를 계획했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 날짜별 기사 속에는 ‘임해군 역모 사건’이 ‘실제 있어야만 하는’ 정치권력의 의지가 사건을 끌여가고 있음을 파악할 수 모티프들이 있다. 이 연대기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모티프는 ‘모함’과 ‘정적제거’이다. ‘모함’과 ‘정적제거’ 모티프는 연대기를 이야기로 전환하여 역사서사가 가능하도록 한다.

공적 역사 기록인 『조선왕조실록 광해군일기』는 임해군이 역모를 계획한 것이 사실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출발하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려는 목표를 향해 상소와 건의가 이어진다. 이러한 목표가 이루어지면 임해군으로 인해 복잡해진 광해군 즉위 당시의 대내외적 정치 난맥상을 일거에 해소하는 권력안정의 동력을 얻게 된다. 하지만 연대기 서술에서 발견되는 ‘모함’과 ‘정적제거’ 모티프는 공적 역사기록의 신뢰를 흔드는 틈

---

16) 채트먼, 앞의 책, 51쪽.

으로 작용한다. 역사서술을 과거에 대한 의미창출의 과정으로 보고 이 과정에서 서사가 갖는 역할과 기능을 분석하는 것이 역사 서사이론이라고 한 헤이든의 말을 빌려서 해석하자면 임해군 역모 사건의 공적 기록은 연대기 서술에서 발견되는 모티프로 인해 서사적 의미로 전환되는 것이다. 연대기 서술에서 발견되는 ‘모함’과 ‘정적제거’ 모티프를 두고 임해군 역모 사건이 실제 있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광해군과 주변 세력들이 권력의 안정을 구축하기 위하여 벌이는 이야기로 전환되면서 역사서사로 수렴된다. 이때 임해군 역모 역사서사는 역모사건의 진실과 실체를 재조명하는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임기환은 역사 사실이 “무슨 일이 있었나?”를 묻는 것이라면, 역사서사는 “그 일은 어떤 의미와 역사적 맥락을 갖는가?”를 묻는 것이고, 역사서사는 역사 사실과 사실 사이를 연결하는 맥락이면서, 이 점이 연대기와 구별되는 점<sup>17)</sup>이라고 하였다. 이는 헤이든이 말하는 연대기, 역사 이야기, 역사 서사의 개념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가령 임해군 역모사건, 영창대군 살해, 인목왕후 유폐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설명하는 역사 사실이라면, 선조의 핏줄에 대한 콤플렉스 및 적자 세습에 대한 애착, 임진왜란, 영창대군을 둘러싼 대북파와 소북파의 정치적 갈등 등으로 인한 선조와 광해군의 사이의 복합적 변수는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도록 하는 서사이며 서사를 통해 밝혀낼 의미이기도 하다.

역사 사실이 텍스트라면 역사 서사는 콘텍스트다. 임해군 역모 사건은 선조의 성향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고, 영창대군 살해와 인목왕후를 유폐시키는 폐모살제(廢母殺弟)에 영향을 주는 측면도 있다. 광해군에게는 임해군과 영창대군이 정치적 암초 같은 존재였고, 이러한 것들은 연대기적 서술 속 역사적 사실과 서사가 결합되어 읽히는 것들이다. 역사

17) 임기환, 『한국사 교과서 서사의 비판적 검토와 전망』, 『역사교육논집』 80, 역사교육학회, 2022, 7쪽.

사건 텍스트를 콘텍스트와 연결할 때 역사에 대한 해석과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텍스트와 콘텍스트를 연결하는 것이 서사의 기능이다.

아래는 『조선왕조실록-광해군일기』에 기록되어 있는 임해군 역모 관련 기사이다. 광해군 즉위년 2월 14일에서 2월 16일까지 기사를 시간 순으로 일부만 살펴보도록 한다. 연대기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기사에서 발견되는 모티프들이 임해군 역모 사건을 역사서술에서 역사서사로 전환하도록 해준다. 기사 일련번호는 연구자가 편의상 붙인 것이며, 기사 내용 해설은 『조선왕조실록 - 광해군일기』<sup>18)</sup> 기록을 참고한 것이다.

<임해군 역모 관련 광해군 즉위년 기사>

자료 번호	날짜	임해군 역모 관련 광해군 즉위년 기사
1	광해군 즉위년 (1608) 2월 14일	임해군 이진을 선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정원에 전교하다
2	광해군 즉위년 (1608) 2월 14일	임해군 이진의 집을 엄히 지키고 출입하는 사람을 금하게 하다
3	광해군 즉위년 (1608) 2월 14일	임해군이 집을 나가다 발각되자 비변사에 가두다
4	광해군 즉위년 (1608) 2월 14일	임해군의 집을 엄중히 포위해야 한다고 병조에서 아뢰다
5	광해군 즉위년 (1608) 2월 14일	장령 윤양 등이 임해군의 일에 대해 속히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아뢰다
6	광해군 즉위년 (1608) 2월 14일	임해군을 도성 밖의 집에 가두고 엄히 지키도록 하다
7	광해군 즉위년 (1608) 2월 14일	장령 윤양 등이 임해군을 속히 절도에 유배해야 한다고 아뢰다
8	광해군 즉위년 (1608) 2월 14일	홍문관에서 양사의 논계를 따를 것에 대한 차자를 올리자 이에 따르다
9	광해군 즉위년 (1608) 2월 14일	임해군을 진도에 안치하다
10	광해군 즉위년 (1608) 2월 14일	정원에서 임해군을 무사로 하여금 압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아뢰다

18) <https://db.itkc.or.kr>

자료 번호	날짜	임해군 역모 관련 광해군 즉위년 기사
11	광해군 즉위년 (1608) 2월 14일	임해군의 병을 의관으로 하여금 치료하게 하다
12	광해군 즉위년 (1608) 2월 15일	임해군이 배소로 갈 때 각도의 감사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하라고 전교하다
13	광해군 즉위년 (1608) 2월 15일	의금부에서 임해군을 정배하는 일에 대해서 아뢰다
14	광해군 즉위년 (1608) 2월 16일	임해군을 무함하고 유영경을 파출시키고 정인홍을 복귀시키는 것에 대한 사론
15	광해군 즉위년 (1608) 2월 16일	임해군에 관한 일을 대신들이 의논하라고 정원에 전교하다

<자료1>에서 <자료13>까지는 즉위년 2월 15일까지 임해군 관련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자료1>은 ‘국가 불행으로 이런 논의를 하게 되었고, 형제 사이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선왕의 명령도 있고 하니 차마 버릴 수 없으므로 대신들이 상의하여 선처해줌으로써 형제 간 우애를 보존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광해군 전교이다. <자료2>는 이산해(李山海)·이원익(李元翼)·이덕형(李德馨)·이항복(李恒福)·심희수(沈喜壽)·허욱(許頊)·한응인(韓應寅) 등이 임해군을 외딴 섬에 유배를 보내는 것이야말로 우애를 지키는 것이니 조속히 시행하라고 아뢰는 내용이고, 이에 대해 광해군은 임해군을 섬으로 유배 보내는 것은 차마 못하겠으니 무사와 포수(砲手)·군사로 하여금 출입하는 사람을 금하게 하여 만약의 일에 대비하도록 전교를 내린다. 형 임해군을 섬으로 유배 보내는 일까지는 차마 하지 못하는 복잡한 속내를 가진 광해군에 비해 대신들은 임해군 유배를 적극적으로 촉구한다.

<자료3>은 임해군이 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부인(婦人) 차림새로 꾸며 사람에게 업혀 나갔다가 여막에서 발견되는 내용이다. <자료4>에서는 비변사에 가둔 임해군을 더 엄하게 지키라는 광해군의 윤허가 있고 <자료5>에서는 윤양·민덕남·윤효선·이사경 등이 임해군이 밤에 나다니기도 하

여 변을 헤아리기 어려우므로 대의(大義)에 의거 결단을 내려달라는 상소를 올리는 내용이다.

<자료6>에서 홍문관이 다시 상소를 올리는데, 임해군을 속히 섬으로 유배를 보내어 간사한 모의를 방지해야 한다고 호소하는 내용이다. 이에 광해군은 섬에는 결단코 보낼 수 없다는 뜻을 밝히고 도성 밖에 있는 합당한 집을 가려 머물게 하고 엄히 지키라는 명을 내린다. <자료7>에서는 윤양·민덕남·윤효선·이사경이 올리는 독촉이다. 임해군을 도성 밖에서 지내게 했으나 무뢰한 흉도(凶徒)들이 널려 있으니 지친(至親)이라는 사정(私情) 때문에 임해군을 임시로 용서하여 주어 뒷날 후회가 있게 해서는 안 되므로 속히 섬으로 유배를 보내라는 명을 내려달라는 내용이다.

<자료8>은 홍문관이 상소를 올려 광해군에게 사헌부와 사간원의 의견을 따르라고 하자 광해군이 역모 상황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니 단서가 드러날 때까지 모처(某處)에 두고 엄하게 지키라고 명한다.

<자료1>에서 <자료8>까지에서는 광해군이 임해군을 야박하게 처리하기를 주저하는 반면 홍문관과 사헌부, 사간원, 대신들의 요구와 상소가 급하고 심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자료8>에서 광해군이 ‘역모 상황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니 단서가 드러날 때까지’라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빗발치는 유배 상소를 제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역모 상황을 드러낼 만한 단서가 없다는 것을 광해군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내용들은 임해군 역모가 ‘정적제거’와 ‘모함’의 정치 정략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음을 추정케 한다. ‘정적제거’와 ‘모함’은 홍문관과 사헌부, 사간원, 대신들의 요구와 상소의 행위 동기가 되는 모티프이다. 이 모티프로 인해 이 연대기 서술은 역사서사로 전환되는 계기를 맞는다.

<자료9>에서 광해군은 임해군을 진도(珍島)에 유배를 보내라고 의금부에 다음과 같이 전교한다.

“임해군 이진은 오랫동안 이심을 품고서 사사(死士)로 이 군기(軍器)를 저장하고 은밀히 사사(死士)를 양성하여 왔다. 그리하여 지난해 대행 대왕께서 미령하실 때부터 적당(賊黨)들을 많이 모았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많은 명장(名將)들과도 교결하여 무사들을 불러 모아 주야로 불계(不軌)스런 일을 은밀히 도모하여 온 것은 나랏사람들이 다함께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다. 승하하신 날에 이르러서는 발상(發喪)하기 전에 공공연히 그의 집을 나아갔다.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달려 들어왔으니, 그 정적(情迹)이 비밀스러워 가병(家兵)을 지휘한 정상이 현저하다. 이제 지척에 있는 가까운 곳에서 영조(營造)를 가탁하여 철퇴와 환도를 빈 가마니에 싸서 많은 수량을 반입하였으니 헤아릴 수 없는 상황이 조석에 박두해 있다. 음모가 발각된 뒤에 도성 문 밖에 유치시켜 놓았으나 뜻밖의 환란을 차마 말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지친이라는 사정 때문에 고식적으로 용서할 수는 없다. 단서가 드러날 때까지 절도에 정배(定配)하라.”

이 <자료9>는 후에 증인들을 불러 심문을 할 때 심문 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 <자료10>에서는 임해군을 진도에서 유배생활을 하도록 전교를 내리고, <자료11>에서는 임해군을 유배 보낼 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무장(武將)과 무사(武士)를 선정하여 압송하게 하는 것을 윤허한다. <자료11>에서는 아직 유배를 떠나기 전 비변사에 가두어져 있는 임해군에게 병(病)이 있다고 하니, 유배지로 떠나지 말고 병을 보살피게 하여 안심하게 하라고 전교를 내린다. <자료12>에서는 임해군이 유배지로 갈 때 제반 일을 살펴 부족한 것이 없도록 각도의 감사들에게 전하라고 하였다.

<자료13>에서는 의금부에서 임해군을 다시 유배 보내는 일로 대신들과 의논한 일을 아뢴다. 아뢰는 내용은 이산해는 이미 외딴 섬에 유배를 보내는 의논도 있었으니 진도에 유배를 보내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

고, 이덕형(李德馨)과 이항복(李恒福)은 교동(喬桐)도 유배지로 문체될 것 없다는 것으로 상반된 주장을 한다. 이덕형과 이항복은 “이진(李璉)이 패란스럽고 방종한 짓을 한다는 말은 이미 익히 들었다. 그러나 이심을 품고 역모를 꾀하였다는 데 대해서는 아직은 상세히 알 수 없다.”고 말한다. 이덕형과 이항복 역시 역모에 대한 증거가 없음을 지적하며 그의 방탕한 행동과 역모를 구분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덕형과 이항복의 주장은 임해군 역모혐의의 일방적 흐름에 대한 합리적 문제 제기에 해당한다.

이후로 많은 대신들이 이 문제를 두고 격론을 펼치는데 대의를 위해 유배를 보내자는 주장이 우세하다. 역모 근거가 없어 격론이 벌어지는 것과 대의를 위해 유배를 보내자는 주장은 역모가 실재했는지 여부에 대해 연대기 서술이 보여주는 틈이다. 이러한 상황을 들은 광해군이 “의논한 대로 시행하라”고 하지만, 의금부에서는 의논한 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상반되는데 의논한대로 시행하라고 하니 시행이 어렵다고 아뢰고 광해군은 이에 다시 의논한대로 시행하라고 한다. 광해군의 이러한 태도는 역모의 증거가 없는 것이 광해군에게도 큰 부담이었음을 추정케 한다.

<자료14> 기사 제목은 ‘임해군을 무함하고 유영경을 파출시키고 정인홍을 복구시키는 것에 대한 사론’이다. 이 사론(史論)은 임해군 역모 사건 연대기 서술에서 매우 중요한 대목으로 주목해야 한다.

살피건대 이에 앞서 ㉠임해군이 음란하고 난폭한 짓을 멋대로 하고 ㉡유영경이 권세를 독점하여 나라를 병들게 했으므로 ㉢정인홍이 소장을 올려 영경을 논하다가 ㉣찬배당한 데 대해 ㉤사람들이 모두 통분스럽게 여겼었다. 그런데 이때에 이르러 대행 ㉥대왕이 승하한 지 겨우 10여 일 만에 대각(臺閣)이 의논을 바꾸어 임해를 대역(大逆)으로 무함하고 ㉦유영경을 파출시키고 정인홍을 복구시키는 것을 ㉧마치 혁명(革命)을 일으

켜 바꾸어 놓는 것처럼 하였기 때문에 조야(朝野)가 도리어 차탄하면서  
마음 아파하였다.

위 내용은 임해군을 둘러싸고 벌어진 정치적 해법의 난맥상이 재조명  
되어야 하는 이유를 명료하게 서술한 사론이다. ㉠에서는 임해군의 성품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있다. 사론은 임해군의 부정적인 면모가 역모 추정에  
빌미를 주기는 하였지만 임해군의 좋지 않은 성품과 역모 계획은 별개임  
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를 평가로 남기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준다. ㉡은  
유영경이 계비 인목대비에게서 난 영창대군을 선조의 대를 잇는 왕으로  
옹립하고자 한 것을 말한다. 신분에 콤플렉스가 있는 선조가 광해가 아닌  
적자 영창대군을 의중에 두고 있는 것을 간파한 유영경이 광해군 대신 영  
창대군을 옹립하려 했던 것이다. ㉢, ㉣은 이러한 유영경을 이이첨, 정인홍  
이 탄핵하였고 그로 인해 정인홍이 유배를 간 사건이다. ㉤에서는 서술자  
가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지를 여론을 빌려 보여준다. 이  
일로 유배를 갔던 정인홍은 광해군이 왕위에 오름으로써 풀려났다.

㉥은 임해군 역모사건을 바라보는 서술자의 태도를 좀 더 명료하게 보  
여준다. 사헌부와 사간원이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 임해군이 역모를 했다고  
거짓으로 꾸미고 있다고[무함(誣陷)] 기록하고 있다. 앞서 역모 증거가 아  
직은 없다는 광해군, 이항복, 이덕형 등의 고백이 연대기적 서술 군데군데  
기록되어 있고, 사론에서 무함(誣陷)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서도 서술  
자가 이 사건에서 남기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읽을 수 있다. 또한 사론  
은 당시 대북파를 비롯한 대신들의 빗발치는 상소에 의해 임해군 역모사  
건이 거대한 흐름을 형성하였고, 누구도 제지할 수 없었음을 보여준다. 임  
해군 역모사건은 연대기에 틈을 만들어 역사서사로 전환하도록 하고, 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에 간극이 존재하도록 하여 공적 역사에 질문을 하

도록 한다.

㉔, ㉕에서 ‘유영경을 파출시키고 정인홍을 복구시킨 것을 혁명이라도 되듯이 여기는 것을 조야(朝野)가 한숨지으며 탄식하였다’는 문장은 조정 안팎 여론을 빌렸지만, 이 일련의 사건들이 광해군을 둘러싼 대신들과 대북파가 벌이는 승자로서의 횡포라는 점을 기록하여 두고 싶었던 서술자 견해로 보인다. 유영경을 파출시키는 것도 적자인 영창대군을 옹립하려는 세력을 원천봉쇄하려 했던 것이다. 유영경을 탄핵했던 정인홍이 광해군 즉위 후 해배되어 광해군의 복심으로 돌아온 것을 두고 ‘혁명이라도 되듯이 여기는 것을 조야(朝野)가 한숨지으며 탄식하였다’라고 기록한 사론(史論)은 임해군 역모 사건이 재조명되어야 하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 사건에 사실과 진실이 누락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정보이기도 하다. 광해군과 대북파를 중심으로 권력지형을 재편하고 왕권을 다지기 위해 임해군 역모사건도 진행하지만 사실과 진실이 담보되지 않은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역모 담론이었을 수도 있음을 이 사론(史論)이 말해주고 있다.

<자료15>에서 광해군은 임해군 관련 일은 대신들이 의논하여 아뢰라는 전교를 내린다. 이로써 임해군을 역모죄로 다스리고 유배를 보내는 일에 갈등하는 것으로 보이던 광해군의 태도가 역모 인정과 유배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광해군 즉위년 2월 17일 기록에서 광해군은 임해군 사건을 추국하라고 추국청에 전교를 내린다. 이로써 광해군은 임해군 역모사건에 구체적으로 전향적인 태도를 취한다.

“망국한 가운데 이런 큰 변고를 만났으므로 종사(宗社)의 대계를 위해 경들의 말을 마지못해 따른다. 대간의 논계가 전후 한결같지 않았다는 것으로 며칠 동안 죄중기를 청하다가 곧 과중했다는 것으로 인피하였다. 이 것이 어떠한 옥사인데 추국하기를 기다리지도 않고 곧 바로 먼저 인피한

단 말인가. 만일 상세히 살펴 조치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하는 일이 있게 되니, 경들은 의당 나의 뜻을 몸받아 급속히 추국하여 상세히 조치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내용을 대신들에게 이르라.>” <『광해군일기』 즉위년 2월 17일 기록>

광해군은 빗발치듯 올라오는 상소를 결국 수용하면서 종사를 위해서 추국을 한다는 단서를 단다. 이 단서는 임해군 역모사건과 관련한 광해군의 복잡한 태도의 원인 중 하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후대 자신에 대한 평가를 의식한 대목이었을 것이다. 자신이 임해군 역모 사건에 망설이는 이유가 사헌부와 사간원의 태도가 일관되지 않은 까닭도 있음을 밝히는 것은 광해군 자신도 이 역모사건의 실체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임해군 사건을 추국청에서 다루려는 전교가 내려진 후 추국청에서 증인 고언백, 박명현 등을 추국하는 일에 대해 광해군에게 묻는데 이 대목에서 임해군 역모에 다시 의구심을 갖게 된다. 이날의 기록을 풀어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추국청은 고언백·박명현 등을 추국함에 있어 국문하는 말을 만들어야 하는데 사헌부 사간원이 만든 ‘은밀히 이심을 품었다[陰蓄異志]’는 네 글자가 과중하고 착오되어 피하고 있다고 아뢰다. 이 네 글자가 없으면 국문할 내용이 없으니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정용(鄭龍)·지순(智順)·하문을리(下文乙里)·순남(順男) 등 4인은 단지 임해군을 따라 다녔다는 것으로 잡아 가두었는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묻는다. 이 아뢰에 광해군은 사헌부 사간원이 ‘은밀히 이심을 품었다’는 말을 했으니, 이에 의거 국문하고 정용을 비롯한 노비들에게도 같은 기준으로 추국하라는 전지를 내린다. 이후 추국 과정에서 ‘은밀히 이심을 품었다[陰蓄異志]’는 증인을 의심하는 근거로 사용된다. 사헌부 사간원이 만든 ‘은밀히 이심을 품었다’는 말이 광해군의

입을 거쳐 윤희가 된 이후 추국에서 심문을 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은밀히 이심을 품었다’는 말은 구체적인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니 역모를 관철시키려는 입장에서는 묘수를 찾은 것이다.

광해군의 이러한 전교가 내려진 이후부터 『추안급국안』 1권에 수록된 임해군 이진 역모 관련 증인들에 대한 추국이 시작된다. 광해군 일기 광해군 즉위년 2월 18일자 임해군의 종 정용·지순·하문을리 등의 추국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임해군 이진이 오랫동안 이심을 품고서 사사로이 군기를 저장하고 은밀히 사사(死土)를 양성하였으며 명장(名將)들과 교결하고 무사(武士)들을 불러모아 주야로 불계(不軌)스런 일을 도모한 것은 나라사람들이 다 아는 일이다. 승하시던 날에는 집에 나갔다가 한동안 시간이 지난 뒤에 비로소 달려 들어왔으니, 그 정적이 주무하여 자못 가병(家兵)을 지휘한 정상이 있다. 이번에 임금이 계신 지척에서 영조(營造)를 가탁하여 첩퇴와 환도를 빈 가마니에 싸서 많은 숫자를 들여왔으니, 불칙한 화가 조석에 박두했었다. 너희들은 그가 데리고 다니는 친신(親信)하는 종들이니 틀림없이 그의 음모와 흉계를 알고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사실대로 공초하라.” <광해군 일기 광해군 즉위년 2월 18일자>

사헌부 사간원이 만든 ‘은밀히 이심을 품었다[陰蓄異志]’는 말을 광해군이 윤희하고 이 말을 추국에서 심문하는 기준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은밀히 이심을 품었다[陰蓄異志]’는 것은 증거로 입증하기 어렵지만 의혹으로 삼기에 안성맞춤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추국에 대한 종 지순(知順)과 하문을리, 순남의 공초 내용이 일치할뿐더러 임해군 역모사건의 진실을 추적하는 단서가 될 만하다.

지순(知順)이 공초하기를,

“임해군이 초하루에 대내(大內)로 들어갔는데 14일에 임해의 신기가 불편하여 상께서 밖에 나아가 조리하라고 하고 이어 종 하문을리로 하여 금 업고 나가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와 순남·정용이 부축하고 궐문(闕門)을 나오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승하시던 날에는 임해가 아침에 문 안하기 위해 대궐에 나아갔었는데 아침 밥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 나왔다가 낮 문안 때에 도로 들어갔을 뿐 별로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이심을 품고 사사를 양성했다는 일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중략)

하고, 하문을리의 공초 내용도 같았다. 순남이 공초하기를,

“신은 14일 오후에 대궐에 들어가 상전(上典)에게 문후(問候)하였더니, 상전이 신기가 불편하여 나가려 한다고 말을 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와 지순·하문을리·정용 등이 모시고 나오다가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사사로이 군기를 저장한 일에 대해서는 장편전(長片箭) 1,2 부(部)와 창검(槍劍) 한 쌍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는 상전이 1년에 두 번 묘소(墓所)에 가기 때문에 산곡을 왕래할 때를 위한 대비인 것입니다. 이밖에 다른 군기는 없습니다.”(하략)

‘은밀히 이심을 품었다[陰蓄異志]’는 말이 얼마나 황당한 의심인지 종지순이 낱낱이 밝히고 있다. 세 증인의 공초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은밀히 이심을 품었다[陰蓄異志]’는 말의 심문은 힘을 잃는다. 이에 추국청은 말로만 물어서 죄의 단서를 찾아내지 못하는 것이 옥사를 다스리는 체통에 어긋나므로 병조로 하여금 잡아다가 조사해야 한다고 광해군에게 아뢰고 그렇게 조치하라는 허락을 얻는다. 같은 날 광해군은 임해군을 그대로 유배지로 압송하라는 전교를 사간원에 내린다. 다음날인 2월 19일 추국청에서

는 지순과 하문을리를 형장으로 치면서 심문하는 것을 아뢰고 광해군으로부터 허락을 얻는다. 『추안급국안』 1권 <임해군 이진의 역모 사건>에 대한 추국청의 심문과 증인들에 대한 가혹한 고문과 형장이 이러한 토대 위에서 진행된다.

이상에서 임해군 역모 관련 연대기 기사를 분석하였는데, 사건 흐름을 주도하는 것이 역모 담론임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급하게 진행되는 역모혐의 씌우기에서 ‘정적제거’와 ‘모함’ 모티프는 역사서사로의 전환을 가져온다.

## II. 공적 역사서사 담론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증인 진술 서사

임해군 역모 사건에 증인으로 불려온 인물들은 자신이 역모와 무관하다는 것을 밝혀야 하는 입장이다. 이들의 자기 변론은 논리도 빈약하고 내용도 어설프지만 오히려 역모 사건의 실재 여부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힘을 갖는다. 증인들의 솔직함은 권력이 주도하는 역모서사에 틈을 낸다. 인간의 다양한 삶의 양식에는 서사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인 진술이 잘 보여준다. 영문도 모르고 잡혀 와서 무죄임을 항변하는 증인들의 진술은 개인 서사로서 힘을 발휘한다. 증인들의 개인서사는 공적 역사서사에 맞서는 진실의 힘을 결과적으로 갖게 된다.

임해군 역모사건에 불려온 증인들을 심문하고 진술을 받은 기록을 일별해보도록 한다. 자료번호는 심문과 진술 순서에 따라 연구자가 임의로 부여한 것이며, 기사 내용 해설은 『추안급국안』 1권을 참고한다.<sup>19)</sup>

---

19) 『추안급국안』 1권, 이항녕 역, 흐름출판사, 2014.

<임해군 역모 사건 심문과 진술 기록>

자료 번호	증인	심문 / 진술
1	아무개	
2	위졸(衛卒)	
3	지순	심문하기를 청함
4	지순	첫 번째 매질하며 심문함
5	하문올리	첫 번째 매질하며 심문함
6	지순	더 심문하기를 청함
7	정룡	첫 번째 매질하며 심문함
8	순남	첫 번째 매질하며 심문함
9	정룡	두 번째 매를 치기를 청함
10	정룡	두 번째 매질하며 심문함
11	하문올리	두 번째 매질하며 심문함
12	고언백	역모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13	박명현	임해군과 왕래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14	고언백	고언백 처리에 보고함
15	지순	두 번째 매질하여 심문함
16	순남	두 번째 매질하며 심문함
17	정룡	무릎을 짓누르며 심문함
18	하문올리	무릎을 짓누르며 심문함
19	지순	지순 등을 더 심문하기를 요청함
20	지순	지순의 무릎을 짓누르며 심문함
21	김환	김환이 역적모의는 없었다고 진술함
22	물로	물로가 역적모의는 없었다고 진술함
23	경인	경인이 역적모의는 없었다고 진술함
24	종이종	종이종이 역적모의는 없었다고 진술함
25	향운	향운이 역적모의를 모른다고 진술함
26	김환	김환 등을 추국하겠다고 보고함
27	지순	인두로 지지며 심문함
28	순남	인두로 지지며 심문함
29	총립	역적 모의를 모른다고 진술함
30	춘동	의적모의를 모른다고 진술함
31	범손	역적모의를 모른다고 진술함
32	망치	역적모의를 모른다고 진술함

자료 번호	증인	심문 / 진술
33	막동	역적모의를 모른다고 진술함
34	세복	역적모의를 모른다고 진술함
35	애현	이 역적모의를 모른다고 진술함
36	용이	역적모의를 모른다고 진술함
37	만금	역적모의를 모른다고 진술함
38	인수	역적모의를 모른다고 진술함
39	금동	역적모의를 모른다고 진술함
40	의충	역적모의를 모른다고 진술함
41	산휘	역적모의를 모른다고 진술함
42	득신	역적모의를 모른다고 진술함
43	지순	지순 등을 심문한 결과를 보고함
44	김환	김환에게 첫 번째 매질하며 심문함
45	물로	물로에게 첫 번째 매질하며 심문함
46	경인	경인에게 첫 번째 매질하며 심문함
47	종이종	종이종에게 첫 번째 매질하며 심문함
48	향운	향운에게 첫 번째 매질하며 심문함
49	총립	총립에게 첫 번째 매질하며 심문함
50	춘동	춘동에게 첫 번째 매질하며 심문함
51	김환	김환 등에게 더 심문하기를 청함함
52	김환	김환에게 두 번째 매질하며 심문함
53	물로	물로에게 두 번째 매질하며 심문함
54	경인	경인에게 두 번째 매질하며 심문함
55	종이종	종이종에게 두 번째 매질하며 심문함
56	향운	향운에게 두 번째 매질하며 심문함
57	총립	총립에게 두 번째 매질하며 심문함
58	춘동	춘동에게 두 번째 매질하며 심문함
59	김환	김환 등에게 더 심문하기를 청함
60	물로	물로의 무릎을 짓누르며 심문함
61	경인	경인의 무릎을 짓누르며 심문함
62	종이종	종이종의 무릎을 짓누르며 심문함
63	향운	향운의 무릎을 짓누르며 심문함
64	총립	총립의 무릎을 짓누르며 심문함
65	춘동	춘동의 무릎을 짓누르며 심문함

자료 번호	증인	신문 / 진술
66	몰로	몰로 등을 더 심문하기를 청함
67	이득	역적모의를 모른다고 진술함
68	이철	역적모의를 모른다고 진술함
69	이효일	역적모의를 모른다고 진술함
70	이언형	역적모의를 모른다고 진술함
71	이득	등을 심문했다고 보고함
72	이득	비망기로 이득 등을 심문하라고 이름
73	몰로	몰로를 인두로 지지며 심문함
74	경인	경인을 인두로 지지며 심문함
75	이득	이득에게 첫 번째 매질하며 심문함
76	이철	이철에게 첫 번째 매질하며 심문함
77	이언형	이언형에게 첫 번째 매질하며 심문함
78	이효일	이효일에게 첫 번째 매질하며 심문함
79	조명환	무기를 만들지 않았다고 진술함
80	노응희	역적모의와 상관이 없다고 진술함
81	이형윤	역적모의를 몰랐다고 진술함
82	이요	역적모의를 몰랐다고 진술함
83	이금	역적모의를 몰랐다고 진술함
84	하대생	역적모의를 몰랐다고 진술함
85	남서	역적모의를 몰랐다고 진술함
86	몰로	몰로 등을 심문한 내용을 보고함
87	몰로	몰로에게 세 번째 매질하며 심문함
88	경인	경인에게 세 번째 매질하며 심문함
89	노응희	노응희에게 첫 번째 매질하며 심문함
90	이요	이요에게 첫 번째 매질하며 심문함
91	하대겸	하대겸에게 첫 번째 매질하며 심문함
92	남서	남서에게 첫 번째 매질하며 심문함
93	이명린	이명린을 심문함

<자료1>의 첫 진술자는 ‘아무개’로 기록되어 있다. 선조의 병세가 다시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 바로 달려왔고, 그 사이에 다른 의도는 없다고 진술한다. 임해군 역모에 중요한 근거로 지목되는 철퇴와 환도의 경우에도 장

례를 지낼 임시건물도 관청에서 조달했는데 철퇴와 환도를 챙겼을 리 없다고 변론하고 있다. 만약 자신과 자신의 상전인 임해군이 철퇴와 환도를 역모를 할 의도로 가지고 들어왔다면 죄를 받아도 할 말이 없다는 진술로 보아 아무개로 기록되어 있는 진술자는 임해군의 측근으로 보인다. 만약 이 일이 사실이라면 본 사람이 있을 것이니 본 사람에게 물어보면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니 살펴서 시행하라고 말한다. 이 진술은 광해군 일기에 수록된 총 3인의 진술과도 내용이 일치한다.

<자료2> ‘위졸을 조사하겠다고 보고하다’는 추국청의 보고와 광해군의 답변이다. 사실 확인을 간단하게 묻는 걸로 끝내는 건 범죄 사건을 처리하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그리하여 ‘임시 건물을 짓겠다고 핑계 대고 철퇴와 환도를 빈 가마니로 싣다’면 병조로 하여금 문을 지키는 위졸(衛卒)을 찾아내어 잡아오게 하여 심문하여 처리하면 어떻겠냐는 내용이다. 임금은 문을 지키던 위졸에게는 당연히 증거 삼아 심문해야 한다고 답한다. 또 지문이나 하문을리 등은 상전과 떨어지지 않고 따라다녔는데도 진술에서 모른다고 한다니 고집스럽고 거짓되다고 적었다.

<자료2>는 광해군 일기에서 광해군이 임해 역모 사건에 전향적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이후의 내용이다. 광해군의 태도 변화로 임해군과 증인들에 대한 추국이 시작되고, 광해군의 허락 하에 증인들에 대한 가혹한 심문도 자행된다. 광해군의 태도 변화는 임해군을 정치적으로 제거하고자 하는 서사를 추동하는 동력이 된 것으로 보인다. 지순과 하문을리에 대한 심문이 자주 있었던 것도 임금이 추국청에 답한 이 내용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자료3> ‘지순 등을 심문하기를 청하다’는 추국청의 보고와 임금의 답변이다. 추국청에서 한 보고에는 먼저 증거를 확보한 뒤 국문하는 것이 범죄사건을 다루는 원칙이므로 지순과 하문을리를 매를 쳐서 심문하여 사실을 밝히는 게 어떻겠냐는 내용이 있다. 광해군이 임해군 역모사건에 대한

일종의 지침을 준 것이다. 임해군에 대한 정치적 제거 담론은 다양한 방면에서 이루어지는데 광해군의 태도 변화와 지침은 역모 서사를 추동하는 중요한 모티브가 된다. 삼사(三司)의 보고 내용을 중요하게 언급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은 임해군 역모 사건을 적극적으로 논핵하고 역모 내용을 기정사실처럼 정하여 이 사건을 관통하는 핵심 기관인 정황이 광해군 일기 곳곳에 기록되어 있다.

임금의 답이 있는 후 <자료4> ‘지순에게 첫 번째 매질하며 심문하다’에는 지순을 다시 불러 매질하며 조사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심문 내용은 임금이 추국청 보고에 답한 내용과 동일하다. 임금이 심문에서 빠뜨렸다고 지적한 내용이 지순을 다시 불러 심문하는 내용에 그대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추국청이 애당초 증거물이 있는 사안 중심으로 확실하게 심문하려고 했던 계획을 변경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자료5> ‘하문율리에게 첫 번째 매질하며 질문하다’에서도 임금이 추국청 보고에 회신한 답변 내용이 그대로 들어 있으며, 다만 애당초 추국청이 증거물이 있는 사안 중심으로 심문하려 했던 내용이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다. <자료6> ‘지순 등을 더 심문하기를 청하다’에서는 지순과 하문율리, 정룡, 순남 등의 증인에 대한 보고를 추국청에서 올리고 임금이 이들에 대한 심문 방향을 간단하게 언급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후 <자료7>에서 <자료11>까지는 정룡, 순남, 하문율리를 더 심문하는 내용이 나온다. 심문 내용은 임금으로부터 받은 답장에 적힌 지시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다. 추국청에서 증거 중심 심문에 대한 의견을 올렸으나 임금은 이를 묵살하고 심문의 범위를 제시하고, 추국청은 이를 토대로 원하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동일한 심문을 반복한다.

<자료12>는 고언백의 진술이고, <자료13>은 박명현의 진술이다. <자료13>에서 박명현은 진술을 통해 자신이 비록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임해군을 개나 돼지 보듯 하는데 임해군과 결탁하여 심복이 될 리 전혀 없다고 한다. 임해군과의 두 번의 인연도 진술하는데 이 진술 역시 구체적이다. 임해군이 안변(安邊) 적진에서 서울로 향할 무렵에 말 위에서 본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자신이 사는 새문 밖 반송리에 불이 났을 때 임해군이 반송리에 고기를 잡으러 왔다가 멀리서 불이 난 것을 보고 하인에게 누구 집에서 불이 났냐고 물어 박명현의 집이라고 하니까 임해군이 불러 왜적에 잡혀 있을 때 자신을 도와준 것을 치하한 것이 전부라고 내용이다.

<자료14> ‘고언백 등의 처리에 대해 보고하다’에서는 추국청에서 고언백과 박명현에 대해 심문한 결과를 임금에게 올리고 답변을 받는 내용이다. 답변에서 임금은 고언백의 자기진술이 흉악하고 거짓되니 심문하여 사실을 밝히라고 이른다. 추국청에서는 고언백과 박명현의 진술을 보아 종들에 대한 추국을 마치고 단서가 드러나면 처리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하지만 임금에 의해 이 의견은 묵살 당한다. 추국청은 증거와 정황이 합리적으로 의심할만한지를 따지는 반면 광해군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모사건에 대한 심증에 대한 확신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게 된다.

<자료26> ‘김환이 역적모의는 없었다고 진술하다’에서 김환은 앞에서 다른 증인들의 진술보다 구체적으로 반박한다. 앞서 진술들이 심문과 거리가 멀고 추상적이었던 것은 임해군 역모와의 관련성이 희박한 데서 온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김환은 임금이 추국청에 보낸 답변에서 역모와의 관련성을 추정하고 있는 인물이다. 김환이 구체적으로 임해군의 역모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아 임해군의 측근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자료에서 김환은 자신이 장무(掌務)로 10년 동안 일했는데 심문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한다. 임해군과 소송 걸린 소송 당사자들이 지어낸 말일 것이라고 추정하면서, 소송건도 모함이었다는 진술을 한다. 집

안에 무기도 감추어둔 일이 없고, 많은 역적 무리도 모은 일이 없고, 이번 에 역모사건으로 체포된 사람들도 모두 종들이고, 두 사람은 말먹이꾼으로 데리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임해군은 평일에 어디 드나들지 않았고, 사냥도 하지 않았고, 보통 때는 집에서 작은 표적이나 과녁을 쏘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쓴 적이 없다는 것이다. 선조가 승하하던 날 임해군이 공공 연히 나간 일도 없고, 첩퇴와 환도도 싸서 들어온 일이 없으며 집을 이미 수색했으니 감추어두었다면 압수하면 될 것이라고 한다. 자신이야 나이가 들어 죽어버리면 그만이지만 사건의 실상이 나중에 드러나면 조정에서도 후회할 것이라고 말한다. 김환의 이 진술은 자기변론보다는 자신이 모셨던 임해군에 대한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변론이어서 주목할 수 있다.

많은 종들과 일을 돕는 사람들이 증인으로 불려와 심문에 진술을 했는데, 노비들의 진술 몇 개를 소개한다. 출처는 변주승 외, 『추안급국안 국역본』이다.

<임해군 역모 관련 증인 인적사항과 진술 주요 내용>

증인 인적 사항	증인 진술 내용
궁의 종 물로 나이 25세	땔나무와 꿀 베는 일을 함. 선조가 돌아가신 날 임해군이 집밖으로 나갔는지는 땔나무를 실으러 나갔으므로 알 수 없음. 원래 궁의 종이 아니고 양민의 아들로 남의 집에 고용되어 먹고 살다가 잡혀 와서 궁가에서 일했는데 그저 말이나 이끌고 땔나무나 했을 뿐이어서 그 나머지 일은 전혀 모름. 병기가 있는지 없는지, 이름난 장수들과 결탁하고 무사가 출입했는지 어떤지는, 제가 오랫동안 땔나무와 꿀 베는 일을 맡아서 매일 새벽에 나가서 저녁에 돌아왔으므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음.
궁의 종 경인 나이 45세	충찬위 심부름꾼으로 임해군 집에서 일한 적도 드나든 일도 없음. 3월 14일 우연히 임해군 집에 들어갔다가 군사들이 집을 에워싸는 바람에 못 나오고 수색할 때 잡힘.
궁의 종 종이종 나이 29세	임해군의 집 밖에 사는 노비로 땔나무와 꿀 담당. 무기를 감추었다는 사안은 제작할 일이 있어 풀무를 설치한 것일 뿐 따로 무기를 만든 적이 없음. 나머지 심문 내용은 알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알지도 못함.
궁의 사내종 향운 나이 31세	땔감 실어 나르는 일을 하므로 심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함. 임해군이 활을 쏠 때 별감(別監) 등과 쏘았을 뿐 다른 양반은 와서 쏘지 않음. 땔 나무를 베는 일을 하고 있어 집에 있을 짬이 없어 그날의 일은 알지도 모지도 못함. 광해군이 동궁일 때 임해군이 별감 등과 함께 다음처럼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함.

증인 인적 사항	증인 진술 내용
공의 사내종 총립 나이 24세	내수사 종이며 숙부가 공의 종으로 있어 숙부를 따라 궁 안에 살았음. 심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 없음. 선조 돌아가신 날 임해군이 나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무명을 사러 시장에 갔다가 돌아올 쫘 임해군이 아침을 먹지 않았다며 잠시 나왔다며 들어가는 것을 서학고개에서 잠시 마주칠 뿐이었음.
공의 종 춘동 나이 49세	본래 관청의 종으로, 궁 담장 아래에서 살면서 샷감을 만들어 생활 밀전을 삼으며 살았고, 궁 나의 일은 전혀 듣지도 알지도 못함. 심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리 못했으나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함.
공의 종 범순 나이 57세	높고 쓸모없다는 이유로 23년 전 상전에게서 쫓겨나 궁문 성 옆에 움막을 짓고 살고 있음. 올해 1월 누이동생을 만나러 해주에 갔다가 오니까 임해군은 이미 죄를 입어 귀양길 떠난 지 이틀이 되었다고 들었음.
공의 종 망치 나이 45세	장무(掌務) 김환의 종으로 궁가 밖에서 살면서 땀감과 꿀을 준비하는 일만 했으므로 심문한 내용은 알지 못함. 선조 돌아가신 날도 땀감을 실으러 나갔으므로 알지 못하고 철퇴와 환도도 눈앞에서 심부름 하는 종이 알지 자신은 알지 못한다고 함.
공의 종 막동 40세	본래 공의 종으로 새내(新川)에 살면서 삼전포 채소밭을 맡아 각종 채소를 낱자에 맞추어 궁 안에 들이는 일을 함. 2월 14일에 똥(糞)을 실어 내 가려고 궁 안으로 들어왔다가 포도청 군사들이 궁을 둘러싸고 있어서 나가지 못하고 잡혔을 뿐 나머지 일은 전혀 알지 못함.
공의 종 세보 나이 18세	본래 양인으로, 임해군 집의 말 먹이꾼 순화에게 고용된 머슴임. 순화의 집에 들어와서 산 지 한 달이 안 되었으므로 심문 내용은 알지 못함.
공의 종 애현 나이 28세	부모도 없는 사람으로 남의 집에 고용된 머슴으로 먹고 살고 있음. 다른 사람의 말을 곧이 듣고 임해군 공의 행랑 말먹이꾼에게 머슴으로 들어가 소와 말을 기르고 땀나무나 꿀을 베는 일을 함. 어리석고 못한 사람이라 심문 각각의 사안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함.
공의 종 용이 나이 34세	임해군 집의 종이 아니라 황주 사는 개인의 종임. 임해군의 농장에 소속된 종에게서 값을 받고 궁가에 들일 밀가루를 싣고 왔다가 2군사들이 궁을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고 잡혀서 갇힌 것임. 임해군이 했던 일을 알 길이 없음.
공의 종 만금 나이 20세	고양 땅에 사는 공의 종으로 양반 집 종 물로가 부역을 바치라고 잡아 와서 궁 안에 살았음. 궁 내에 외양간 일을 맡을 하인이 없었으므로 소와 말을 기르는 일을 함. 궁에 들어온 지 이틀 만에 잡혔으므로 물어보신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함.
공의 종 인수 나이 23세	임해군 집의 종이 아니라 평안도 평양 성안에 사는 사람으로 요역을 견딜 수가 없어 떠돌다가 서울까지 옴. 이달 2월 14일 정릉동 근처를 지나가다가 활과 화살을 가지고 몰려오는 군사와 마주치자 머리동절해서 길가에 있는 집 대문 안으로 무작정 들어갔는데 군사들이 마침내 그 집을 둘러싸서 나갈 수 없었고 그대로 잡혀서 갇힘. 임해군이 했던 일을 전혀 알 길이 없음.
공의 종 금동 나이 30세	본래 해주에서 태어났으나 상전이었던 관청의 종 순억이 가난한 나머지 팔아버림. 임해군이 어머니인 종 금이와 나를 샀는데 10년 전부터 임해군 궁 밖에서 살았음. 심문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함.
공의 종 의충 나이 15세	피주에서 태어났고 일찍 부모를 여의어 의지할 데가 없다가 공의 종인 하문율리에게 머슴으로 와서 살고 있음. 새벽부터 저녁까지 땀나무를 하느라 집에 있던 날이 하루도 없어 임해군이 했던 일을 전혀 알 수 없음.

증인 인적 사항	증인 진술 내용
궁의 종 산휘 나이 17세	정해진 거처 없이 땔나무를 팔아서 먹고 살았음. 저녁 무렵 땔나무를 팔러 임해군 궁 앞에 도착하였는데 행랑 사람들이 땔나무를 사려고 할 무렵 포도청 군사들이 에워싸서 땔나무 팔던 사연을 통사정하고 빠져나오려 했으나 들어주지 않아 잡히게 됨. 심문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 없음.
궁의 종 득신 나이 10세	임해군 집의 사무를 맡아보던 죽은 종의 사내종으로, 군사들이 궁가를 포위하기 전에 함경도로부터 잡혀옴. 어리석고 어린 나이로 임해군이 했던 일을 알지 못함.

이상의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임해군 역모 진술서사가 지니는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해군 역모 사건 증인들은 대부분 역모에 가담하거나 도움을 준 만한 인물들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들에 대한 추국 과정은 길고 혹독하기까지 하다. 『조선왕조실록-광해군일기』 광해군 즉위년 5월 23일자 기록에는 임해군 역모를 입증하기 위해 임해군 궁노(宮奴)들을 회유하고 매질하였고, 그들로부터 증거 삼을 내용을 얻지 못하여 귀양을 보낸 내용이 나온다. 기록에 의하면 임해군의 궁노(宮奴)인 인손(彦孫)·천명(天明)은 진도(珍島)로, 양손(梁孫)·국이(國伊)는 남해(南海)로, 장추(長秋)는 거제(巨濟) 섬으로 귀양 보낸 것으로 되어 있다.

옥사가 일어난 초기에 단서를 얻지 못하자 심문을 받고 있는 궁노 중에 맨 처음 자복하는 자에게는 사형을 용서해 주도록 하였다. 이 때문에 이 다섯 사람이 한창 독한 매질을 받고 있다가 이렇게 유도하는 분부를 듣고 횡설수설 어지러이 말하였으나 분명하게 증거 삼을 만한 내용은 없었다. 그런데 사형을 용서해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사형을 감하여 귀양을 보냈다. 이렇게 옥사를 조사하는 체모는 옛날에는 없었다.<sup>20)</sup>

임해군 역모를 입증하기 위해 얼마나 무리한 심문과 회유, 매질이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다. 위 <표4>에서 궁의 종 의충을 보면 의충

20) 한국고전번역원, 『조선왕조실록-광해군일기』, 광해군 즉위년 무신(1608) 5월 23일 이규옥 (역), 1992.

은 15세로 파주에서 태어났고 일찍 부모를 여의어 의지할 데가 없다가 궁의 종인 하문을리에게 머슴으로 와서 살고 있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땀나무를 하느라 집에 있던 날이 하루도 없어 임해군이 했던 일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다. 의지할 데가 없어 궁의 종에게 와서 머슴으로 살고 있는 처지인데, 임해군의 역모를 알 까닭이 없었을 것이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땀나무를 하느라 집에 있던 날이 하루도 없어 임해군이 했던 일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다’는 종 의충의 진술은 공적인 역모역사와 증인들의 진술이 이질적인 서사 층위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증인들의 알리바이는 임해군 역모혐의의 진실 여부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대부분 노비나 나이가 어린 증인들은 역모사건이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들의 생업은 그들이 임해군 역모와 연결되는 것이 가당치 않음을 보여준다. 노비나 나이 어린 증인들의 솔직한 진술서사는 역모를 기정사실화 하고 증거를 입증해가는 입장에서는 힘을 잃게 된다.

서사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주제로 다루어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 연구에서도 공적 역사서사에 대항하여 개인의 미시서사가 지닌 중요성에 주목해보았다. 임해군 역모사건을 두 축의 서사 관점에서 분석하여 공적 역사서사에서 암묵적으로 동의되었던 진실의 부재를 개인들의 진술 서사로 새롭게 재조명해보았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

### 3. 두 서사의 진실 드러내기 길항작용

이 연구는 『추안급국안』에 수록된 광해군의 형 임해군의 역모사건 심문과 진술 기록을 대상으로 하되 『조선왕조실록 광해군일기』에 기록된 임해군 역모 혐의 주장을 연대기 순으로 참고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처럼 임

해군 역모사건에는 두 개의 서사가 존재한다. 『조선왕조실록 광해군일기』의 연대기적 기록에서 살펴볼 수 있는 임해군 역모 사건은 공적 역사서사로 임해군 제거를 위한 정치적 담론 중심으로 설계되었음을 추론해볼 서사적 장치들이 발견된다. 이 서사와 대립항을 이루는 미시서사는 추국장에 불려와 임해군 역모와 관련하여 자기변론을 하는 증인들의 진술이다. 증인들의 면면은 역모 관련 증인으로 연결하기 어려울뿐더러 역모에 대한 개념 이해도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편의상 공적 연대기 서사 속 임해군 역모사건 진행을 A서사라 하고, 증인들의 진술을 B서사라 하기로 한다. 이 두 서사는 대립항을 이루며 진행된다. A서사는 임해군이 역모를 했다는 전제 하에 섬으로 유배를 보내어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는 삼사와 대신들의 상소가 빚발치는 행위를 통해 진행된다. 여기에 우유부단하게 대응했던 광해군의 태도가 변하는 과정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이 서사는 임해군을 제거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움직이는 권력의 힘을 보여준다.

B서사는 광해군의 형 임해군 이진(李肆)의 역모사건에 관련되었다고 추정되는 증인들이 추국장에 불려와 진술을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다른 역모 사건과 달리 이 사건에는 궁 안과 궁 밖의 남녀종들이 대거 불려온다. 노비 외에도 종친이나 문무관 등 임해군과 인연이 있을법한 사람들에 대한 추국이 있었고 심지어 어린 노비나 나이든 노비 할 것 없이 불려 심문을 한다. 증인들의 진술은 투박하고 솔직하고 엉뚱하며, 생계를 위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들을 역모의 증인으로 추국한다는 것이 풍자로 여겨질 정도이다.

A서사에서 광해군의 태도도 주목할 만하다. 당시 임해군을 둘러싼 부정적인 평판과 구설들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할 내용들로 넘쳤고 대신들의 임해군 처단 요구가 빚발쳤다. 『조선왕조실록-광해군일기』에 의하면 광해

군은 이러한 상소에 수차례 만류하거나 거절하는 태도를 취한다. 광해군은 초반에는 법의 절차를 통해 형인 임해군의 역모사건을 다루려고 했음이 추국청 보고서 답변에 드러난다. 선왕의 유지나 후대의 평가를 염두에 둔 면도 있으나 역모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광해군이 삼사와 측근의 요구를 수용하게 되면서 임해군 유배와 증인 심문이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

B서사에서는 역모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증인들이 정치에 대한 무지함을 그대로 드러내며 진술을 하고 위협과 매질을 당한다. 역모서사를 완성하기 위해 권력이 개인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임해군 역모가 권력에 의해 허구의 토대 위에 진실이 결여된 채 위협하게 세워지는 것이라면, 증인들의 개인 진술은 각각의 솔직한 개인 서사와 그들이 가진 상황과 처지로써 진실을 견고하게 만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A와 B는 각각 대립항을 이루며 긴장 구조를 가지지만 진실 추구라는 측면에서 길항관계임을 보여준다. 두 축의 서사는 임해군 역모사건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재조명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A는 역모혐의를 전제하고 무리하여 임해군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려는 의도가 앞서다보니 곳곳에 틈을 보이게 된다. 광해군이나 이항복·이덕형 등이 내비치는 혐의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언급하는 것이나 앞서 언급한 바처럼 사론(史論)에서 여론이나 조야(朝野)의 입을 조심스럽게 빌려 이 역모사건이 가지는 허구를 지적해두고자 한 점 등이다. 또 역모와 관련하여 증인들을 심문하는 데 필요한 언어적 기준을 삼사에서 마련하여 광해군에게 제공하고, 광해군이 후에 이를 수용하면서 심문의 기준으로 사용한 점 등도 A서사가 진실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B는 이 역모사건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서사이다. 어리고 나이 든 많은 노비를 역모사건의 증인으로 불러 진술하도록 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역모 증인 대부분을 노비로 추정했다는 것은 임해군 역모 혐의 증거를 갖추는 것이 애당초 여의치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추국장에서 펼쳐지는 증인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드러내면서 황당하고 어이없어 하는데 이러한 감정적 반응은 이들의 역모 관련 여부를 낮선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두 축의 서사는 대립항의 성격을 지니지만 A서사의 틈으로 인해, B서사 증인들이 보여주는 역모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의 조건으로 인해 동일한 결론 지점에서 만난다. 결과적으로 두 서사는 다른 층위에서 긴장된 구조를 지니지만 임해군 역모사건의 진실 여부 재조명이라는 결론을 향해서는 길항 관계인 셈이다.

A 서사인 『조선왕조실록 광해군일기』나 B 서사인 『추안금국안』 <무신년 임해군(臨海君) 이진(李璉) 심문기록>은 기록물 자체로서 힘을 갖는다. 조선시대는 기록을 매우 중요시하여 분야와 사안마다 관련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놓아 당대를 다각도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A는 연대기 중심 정사(正史) 기록이다 보니 거시 역사로서 지위를 갖게 되고, B는 개인 증인들의 삶을 보여주는 미시 역사로서 권위는 없지만 진실을 담보하고 있다. A가 지니는 연역적 역사담론의 한계를 B가 지니는 귀납적 방법으로 보완함으로써 임해군 역모사건의 진실을 새로운 시각으로 읽어낼 필요가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임해군 역모사건을 두 축의 서사 관점에서 살펴 진실을 재조명하는 시도를 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두 서사가 충돌하면서 서로 이질적인 층위를 형성하지만 결국에는 같은 방향성을 갖게 되는 점에 주목하였다. 임해군의 망나니짓이나 도덕적 해이는 그것대로 처단할 방법을 찾아야 함에도 복잡한 정치적 상황과 맞물린 임해군을 역모혐의로 수렴하여 제거하려다보니 무리하게 증거 찾기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증인들의

솔직한 진술이 힘을 얻으면서 공적역사 서사는 힘을 잃고 진술서사가 지닌 진실의 힘에 합류하는 형국이 되어버린 것이다. 임해군 궁가 안에서 일하거나 궁 안으로 빨감, 밀가루 등을 대는 일을 하는 노비로서 근근이 생존해가는 상황을 진술하는 증인 중에는 심지어 다섯 살짜리도 있다. 무얼 묻든지조차 모르겠다는 진술을 하는 이러한 증인들의 진술은 풍자에 가깝게 공적역사 서사의 권위를 무너뜨린다.

이상에서 서사적 관점으로 임해군 역모사건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서사 관점으로 역사를 다시 살펴본 것은 공적 역사에 의해 집단의 기억으로 자리한 것들에 사실이나 진실이 누락된 채 전해져오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려는 의도였다. 김기란<sup>21)</sup>은 역사와 관련된 과거의 사건을 기억의 공간, 기억의 장(場)에서 재편하는 작업은 사실(史實)들을 기억으로 대체하려는 목적을 지닌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고화된 집단기억 혹은 문화적 기억을 탈신성화하고, 그것들이 배제한 것들을 망각으로부터 구체해내려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연구도 역사 사건에서 간과했을지도 모를 진실의 왜곡 또는 재조명이 필요한 역사 사건을 당대 인간이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망과 속성을 포함한 서사층위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 IV. 역사극 콘텐츠로의 활용 방안

본고에서 역사극 콘텐츠는 역사를 원천자료로 한 연극이나 희곡을 비롯하여 영화나 드라마까지를 포함한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임해군 역모사건은 다양한 매체로의 전환이 가능하나 영화나 드라마 매체로의 전환이 이 사건의 대중화에 흥미와 의미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이에 한정하여

---

21) 김기란, 앞의 책, 9쪽.

살펴보도록 한다. 그동안 광해군은 영화나 드라마 콘텐츠의 소재로 활용되어왔지만, 임해군 역모사건을 중심 소재로 하여 만든 콘텐츠는 없었다. 이 연구에서는 임해군 역모사건을 서사관점으로 분석하고, 사건의 진실을 추적해가는 갈등 국면을 역사 콘텐츠로 활용하는 방안을 탐색해보도록 한다.

고기봉은 수많은 사건들이 경우에 따라서 서사화 될 수도 있고 그대로 소멸될 수도 있음을 있으므로 서사화 되는 사건과 그대로 소멸하는 사건이 어떤 차이를 지니는지 검토해 볼 필요성에 주목하여 현장에서 직접 사건을 경험하고 목격했던 ‘목격자’와, 그 사건을 다른 시공간으로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이론화해 보려했다.<sup>22)</sup> 그의 이론을 이 연구에 적용하여 본다면 임해군 역모사건 심문과 진술 기록은 ‘목격자’에 해당되고, 이 기록을 역사 콘텐츠로 변용하는 기획자나 작가는 이 사건을 후대의 대중에게 전하는 ‘전달자’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전달자’의 중요한 역할은 그 사건이 진실한가, 질문을 던지고 역사서사의 틀에 작가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대중들이 원인과 결과를 새롭게 추론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임해군 역모사건은 어떤 특수성으로 인해 역사적으로 서사화 되기에 적합한지를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전술한 바처럼 광해군 즉위에 즈음하여 임해군의 존재는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불편하게 하고 백성들 사이의 부정적인 민심이 들끓었고 광해군의 형이라는 사실 등이 불편하게 얽혀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당위성을 갖추어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역모로 다스리는 것이다. 그런데 역모리는 결론을 정해놓고 증거를 모으다보니 사실과 진실이 누락된 것을 들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역사에서 자주 보는 것이기도 하지만 임해군 역모사건만이 지니는 특수성이 있다.

---

22) 이재봉, 『목격자와 전달자, 그 서사론적 가능성』, 『코기토』 89호,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9, 103~105쪽.

증인들을 추국청으로 불러다가 심문을 하는 과정에서 축적되는 진실이 그것이다. 증인들의 진술은 재가공하지 않고 바로 콘텐츠화해도 미적 체험이 가능해지는 서사이다. 증인들이 의도하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증인 진술이 공적 역사서사에 긴장감을 주면서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역사적이고 정치적으로 복합적 함의를 지닌 소재들을 콘텐츠화 할 때 어떤 맥락으로 재해석할 것인지의 여부가 매우 중요하므로 현대적으로 재가공할 때 허용되는 작가의 상상력에도 일정한 규칙이 필요하다. 사실(史實) 기록에서 발견되는 모티프와 이를 모티브로 한 콘텐츠로의 전환에 어떤 서사적 구현이 필요한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임해군 역모 사건의 경우 매체 전환 시 작가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두 축의 서사를 대중에게 추리를 통해 효과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벌어진 진실의 틈을 대중이 상상을 통해 메우도록 하고, 임해군 사건에서 무엇이 진실인지를 질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역사극 콘텐츠는 흥미와 의미 둘 다 필요로 한다. 잘 만들어진 역사드라마나 역사영화가 대중에게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의식과 역사적 기억을 갖게 하는 문화 도구라는 점, 역사 콘텐츠는 대중의 새로운 역사의식 형성과 문화적 기억의 매개물이 된다는 점을 깊이 의식할 필요가 있으므로 흥미와 의미를 염두에 두면서 사실(史實)과 작가적 상상력의 경계를 고민해야 한다. 대중이 역모의 실체가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함과 동시에 광해군과 임해군을 둘러싼 갈등에서 다양한 성찰을 해보도록 하는 것이 콘텐츠의 의미가 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공평과 공정의 가치는 중요한 대중적 이슈 트렌드이다. 고전자료를 소재로 대중 콘텐츠를 제작할 때 현대 대중의 트렌드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목할 때 이 부분은 주제적 시각을 드러내는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다. 임해군 역모사건은 형제 간 갈등이 주요 모티프이므로 왕위 계승이라는 특수성을 두고 공평과 공정의

논쟁거리를 콘텐츠로 생산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증인들의 엉뚱하고 순박한 진술은 역사극 콘텐츠에 흥미를 제공하는 요소이지만 흥미를 넘어 역모혐의에 새로운 서사적 국면을 가져다주는 소재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권력적 욕망에 의해 진행된 공적 역사가 하찮은 증인들의 진술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흥미 요소이지만 이러한 흥미 요소는 개인이 국가 권력에 의해 어떻게 위협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다시 콘텐츠의 주제적 의미로 수렴된다. 따라서 역사 콘텐츠로 변용할 때 흥미와 의미를 추구하되 이러한 양상이 잘 맞물려 주제로 드러나도록 집중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것을 정리하면 임해군 역모사건의 콘텐츠화는 세 개의 서사를 기본 틀로 구축할 수 있다. 결론을 정해 놓고 증거의 조각을 모아가는 공적 역사서사, 이에 대항하여 증인진술을 하면서 의도치 않게 공적 역모서사를 무너뜨리는 진술 서사, 이러한 서사의 충돌과 엇갈림을 관찰하면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콘텐츠를 관찰하게 될 대중들의 서사를 정교하고 치밀하게 잘 배치하는 플롯을 짜야 한다. 역사적 사건을 현대적 역사극으로 재맥락화 할 때 시청자와 관객은 충돌하는 두 개의 서사와 광해군 및 임해군 관련 선행적 역사 지식 등의 상호텍스트성 관계 속에서 역사를 평가하거나 이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모티프를 어떻게 활용하는가도 중요한 관건이다. 임해군 역모 역사에는 여러 개의 모티프가 존재한다. 이 모티프들은 역사콘텐츠로의 재가공을 가능케 하는 요소들이다. 가장 중요한 모티프는 ‘형제 갈등’이다. 형제갈등은 흔한 모티프인데, 형이 아닌 동생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고 형이 역모혐의를 받으면서 생기는 갈등이라는 점이 특별하다. 망나니짓을 해서 여론과 민심을 잃었던 임해군이고, 광해군 측근들에 의해 정치적 제거 대상인 터라 이 갈등에는 힘의 기울기가 존재한다. 하지만 안정된 왕권을 위해 제거

해야 하는 대상으로 임해군에 대한 혐의 씌우기가 집요하므로 긴장된 갈등구조이다. 형제 갈등 모티프가 지닌 정치적 의미가 간단하지 않다. 같은 공빈 김씨 소생인데 장자 우선 세습이라는 관례를 깨고 동생이 왕위에 올랐고, 공빈 김씨는 계비이며, 인목대비에게서 적자 영창대군이 태어난다. 이러한 형제 간 갈등이 콘텐츠를 관통하는 주요 모티프가 되어야 한다.

형제 갈등 모티프는 ‘가족 모티프’로 확장될 수 있다. 선조, 공빈 김씨, 광해군, 임해군, 영창대군, 인목대비를 둘러싼 관계이다. 선조는 아버지이면서 왕으로서 왕위세습에 우유부단하고 무능한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과정에서 왕위에 오른 광해군인지라 측근들의 왕권안정과 강화는 강박에 가깝다. 이러한 강박은 임해군 역모혐의를 넘어 후에 영창대군과 인목대비의 폐모살제(廢母殺弟)를 가져오고 이는 인조반정으로 이어진다. 실패가 예견된 가족 모티프다. 이러한 가족 모티프는 임해군 역모사건의 전후맥락과 연결되는 것이므로 형제 모티프와 함께 다루어야 한다.

이 역사서사를 관통하는 또 다른 중요한 모티프는 ‘역모’, ‘모함’, ‘진실 찾기’이다. 왕위는 금기된 욕망이고, 역모는 금기된 욕망에 대한 반역이며 진실 찾기는 인간의 보편적 욕망이다. 이러한 모티프들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플롯으로 전환되는 전략이 필요하다.

플래시백 기법도 콘텐츠로 만들 때 고려할 방안이다. 역사 콘텐츠는 두 개 이상의 시제를 갖는다. 영화 감독이나 시나리오 작가, 기획자 등의 시제로써 이는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아도 분명한 시제를 전제하게 된다. 최근 이순신의 한산대첩을 다룬 영화 <한산:용의 출현> 역시 감독이나 작가는 2022년 현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이순신과 한산대첩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암묵적인 선언을 가지고 있다. 또 하나의 시제는 영화 속 임진왜란 당시 한산대첩에 참여했던 많은 인물들의 시제이다. 그런데 현재 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간을 되돌려 과거 시점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

는데 이 때 또 하나의 시제를 갖게 된다. 시간을 되돌려 과거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을 플래시백 기법이라고 한다. 임해군 역모 사건의 경우 광해군 즉위년 즉위를 즈음하여 발생한 임해군 옥사를 다루지만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이해를 충족시키기 위해 선조의 핏줄의식과 성격, 부자관계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플래시백 기법이 필요하다.

## V. 결론

이 연구에서는 광해군 형인 임해군 역모사건을 서사 관점으로 분석하고, 역사극 콘텐츠 소재로 활용할 방안을 살펴보았다. 특정 역사 사건을 서사의 관점으로 고찰해봄으로써 거시 역사나 편년체 역사로 인한 선형적 인식의 틀을 벗어나 역사에 대한 재조명과 새로운 이해가 가능함을 살폈다. 또한 이를 역사극 콘텐츠로 전환할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나간 역사를 현대 대중이 문화적주체로 재조명할 기회를 탐색해보았다.

앞서 논의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와 서사의 친연성 문제를 살폈다. 궁의 노비, 궁 밖의 노비들이 대거 등장하여 자기 결백 및 임해군과 전혀 무관한 자기존재를 증명하는 서사는 편년체 역사 기록물에서는 볼 수 없는 생동감 있고 절박한 스토리들로 역동적인 서사적 특질이다. 이 연구에서 다루는 임해군 역모 사건은 당대 인간의 권력욕과 욕망, 다층적 갈등 관계, 성공과 안정을 위한 모험, 자기방어 등 특정 행위의 동기가 되는 모티프를 가지고 있어 일반적인 서사에서 보이는 속성이 그대로 드러난다.

둘째, 서사 관점에서 임해군 역모 사건을 세 가지로 분석하였다. 먼저 연대기에서 발견되는 ‘모험’과 ‘정적제거’ 모티프가 서사로 전환되는 양상

을 살폈다. 다음으로 공적 역사 담론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증인 진술 서사를 살폈다. 마지막으로 두 서사가 진실을 드러내는 길항관계에 있음을 살펴보았다. 두 서사가 다른 층위에서 긴장된 관계에 있지만 임해군 역모사건의 진실 여부 재조명이라는 결론을 향해서는 길항 관계라는 점을 파악하였다.

셋째, 역사극 콘텐츠로의 활용 방안을 살폈다. 잘 만들어진 역사드라마나 역사영화가 대중에게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의식과 역사적 기억을 갖게 하는 문화 도구라는 점, 역사 콘텐츠는 대중의 새로운 역사의식 형성과 문화적 기억의 매개물이 된다는 점을 깊이 의식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 하에 왕위 계승이라는 특수성을 두고 공평과 공정의 논쟁거리 생산, 임해군 서사에 존재하는 모티프의 서사적 활용, 플래시백 기법 등을 살폈다.

## |참고문헌|

한국고전번역원, 『조선왕조실록-광해군일기』

조선왕조실록, <https://db.itkc.or.kr>

이항녕 역, 『추안급국안』 1권, 흐름출판사, 2014.

김기란, 「역사, 연극, 문화적 기억-기억/망각의 역설이 작동하는 역사의 무대화 방식 일고찰」, 『드라마연구』 53, 한국드라마학회, 2017.

김우철, 「조선후기 推鞠 운영 및 結案의 변화」, 『민족문화』 35, 한국고전번역원, 2010.

박일우, 「역사 복원을 위한 서사 전략 연구」, 『국제어문』 90호, 국제어문학회, 2021.

박태순, 「역사의 서사적 구조와 서사문학」, 『월간사회평론』 92(4), 사회평론, 1992.

안병직, 「픽션으로서의 역사픽션으로서의 역사: 헤이든 화이트(Hayden White)의 역사론」, 『人文論叢』 51,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04.

이재봉, 「목격자와 전달자, 그 서사론적 가능성」, 『코기토』 89호,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9.

이하경, 「추국장에서 만난 조선후기 국가:영조와 정조 시대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임기환, 「한국사 교과서 서사의 비판적 검토와 전망」, 『역사교육논집』 80, 역사교육학회, 2022.

장동하, 「포스트모던 시대 역사 읽기·쓰기」, 『인간연구』 2,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 인간학연구소, 2001.

조지형, 「포스트모더니즘 역사이론의 어깨 위에서」, 『문학과경계』 2(4), 문학과경계사, 2002.

황국명, 「서사론의 요소와 그 시각」, 『현대소설연구』 제8호, 한국현대소설학회, 1998.

채트먼, 홍재범 역, 『이야기와 담화』, 호모 루덴스, 2019.

화이트 헤이든, 천형균 역, 『메타역사 II』,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1.

<Abstract>

An analysis of Narrative characteristic  
Regarding Chu'an and Guk'an and Utilication  
of historical contents on Historical Drama

- Focusing on the <Musinnyeon Imhaegun Ijin Interrogation  
record>

Ham, Bok-hee

This study sought to analyze the Limhae-gun treason case and the testimony of witnesses from a narrative perspective, focusing on the which is included in the first volume of Chuan and Gukan(推案及鞫案) and examine ways to use it as historical drama contents.

Chuan and Gukan is a record of interrogation of criminals according to the king's command, from the treasons in the late Joseon Dynasty to the rebellions, the heinous memorials to the king, and the Seohak. Although the treasons were mainly recorded, it is an important document for understanding the important aspects of the case at the time as it deals with various cases such as rebellions and memorials to the king other than the treasons. The record of the Limhae-gun treason dealt with in this study is a summary of the interrogations and statements of witnesses brought to the Chuguk Office to prove the treason of Gwanghae-gun's older brother Lee Jin (李肆).

There is a chronological record of the Imhae-gun treason in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Gwanghae-gun's diary and the first volume of Chuan and Gukan contains a record centered on the testimony of witnesses against Imhae-gun treason. These records can be viewed as historical narratives because the progress of events and changes can be grasped from the two records and the meaning can be read. The two historical narratives allow a certain gap to re-examine the truth of the Imhae-gun treason, and this is the significance of examining the Imhae-gun treason from a narrative perspective. Although the public history of the Imhae-gun treason is a closed conclusion, the conclusion is dismantled by the arguments of individual witnesses who oppose it, and new truths can be explored. The statements of people who are witnesses of treason, but who do not know what treason is, raise doubts about the truth of public history while maintaining a tense distance from the narrative that seeks to remove Imhae-gun politically.

Various figures such as slaves and children appear as witnesses in the included in the first volume of Chuan and Gukan. Their statements reveal the way of life of the witnesses and how the laws of the Joseon Dynasty worked. Individual narratives which are conducted on a different level from public historical narratives, are also valuable as historical content materials. In this study, we will also examine ways to utilize the Imhae-gun treason as a historical drama content that tracks the truth while increasing tension by intersecting public historical narratives with personal narratives.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the

narrative of self-defense of the Imhae-gun treason from a narrative point of view, and also refers to the development of the Imhae-gun treason chronologically recorded in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Key words : Chu'an and Guk'an, Imhaegun, conspire to rise in revolt, historical drama

**함복희**

강원대학교 교양교육원 강사  
(24399) 강원도 춘천시 거두택지길 80  
전자우편: ham6204@kangwon.ac.kr

이 논문은 2022년 9월 19일 투고되어 2022년 10월 14일 심사 완료하였으며, 2022년 10월 21일에 게재 확정 통보하였음.